

News

우리은행, 가계대출 더 쪼다... 저금리 대출 일부 판매 중단

조선비즈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금융당국의 강화한 대출 규제에 맞춰 한도 제한 및 금리 인상 등 각종 조치 뒤따르는 것으로 보여... 연동하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저금리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결과적으로 평균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 기대 가능

기업대출 연체 문제없다? 자영업자는 '비명'

데일리안

5대은행이 숙박업 및 음식업 관련 기업에 내준 대출에서 불거진 연체가 올해 들어 400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1,000억원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485억원, 신한은행 169억원, 국민은행 161억원, 농협은행 1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 하나은행만 129억원으로 10.4% 감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자사주 5,000주 장내 매입, 우리금융그룹 임원들도 회장의 자사주 매입에 동참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성공적인 완전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호실적 시현해 펀더멘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 피력

케이뱅크 너마저... 신용대출·마통 한도, 연봉 이내로 줄인다

머니S

케이뱅크, 상품 자체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주별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계획... 현재 직장인 신용대출을 최저 금리 연 2.84%,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제공 중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케이뱅크도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 지난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이상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것도 영향

백기 든 카카오, 車보험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잠정중단

머니S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 휴대폰 보험 등 일상생활 관련 보험 잠정 종료... 금소법 위배 소지 보험상품 판매 일시 중단
이번 잠정 중단 상품들은 카카오페이 보험서비스 자회사 KP보험서비스에 특화된 것...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도 잠정종료

보험업 "일반손해보험 급성장...신규영역 발굴해야"

디지털타임스

코로나19 확산에도 인공위성이나 휴대폰 보증보험 등 새로운 보장 영역이 부상하며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세가 지속... 보험사들이 신규위험을 고려한 상품 개발 노력 필요
지난해 일반손해보험 성장률은 8.3%로 전체 손해보험 성장률 7.0%에 비해 높은 편... 장기손해보험 5.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 6.3%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 기록

한국금융지주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일상 속 투자" 구현 포부

서울경제

한국투자증권,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일상 속의 투자 구현 계획...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올 하반기 출시 예정
금융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고객도 접근하기 쉬운 직관적 형태의 사용자경험 플랫폼 구현 의지 피력

美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개시

AP 신문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이 자사 플랫폼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개시...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월별 거래량에 따라 0.12%에서 0.18%
이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업체 파코스 트러스트 컴퍼니와 제휴... 여름 끝나기 전까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하도록 준비할 것 언급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